(751)

조

주체108
(2019) 2

차 례

표지: 끝없는 환희속에 새해 2019년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
사진 조선중앙통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주체108(2019)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지울수 없는 또 한번의 력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에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내시고 온 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사회적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다고 하시였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의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앞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나라의 자립적발전능력을 확대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다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문별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부문별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선진국가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조선인민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할데 대하여서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할데 대하여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각급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 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옳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것이라고 믿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해의 려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는 진리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두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체108(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리설주녀사께서 동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수행하였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렬차가 현지시간으로 7일 밤 9시 30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단동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렬차에서 내리시여 마중나온 중국측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렬차에 오르시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중나온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새해 정초 또다시 상봉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반갑게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첫 대외활동으로 중국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중조관계의 발전을 훌륭히 인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년초 사업이 긴장한 속에서도 바쁜 시간을 내여 방문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환영의식에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다시금 인사를 서로 나누시며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들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지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특수한 정세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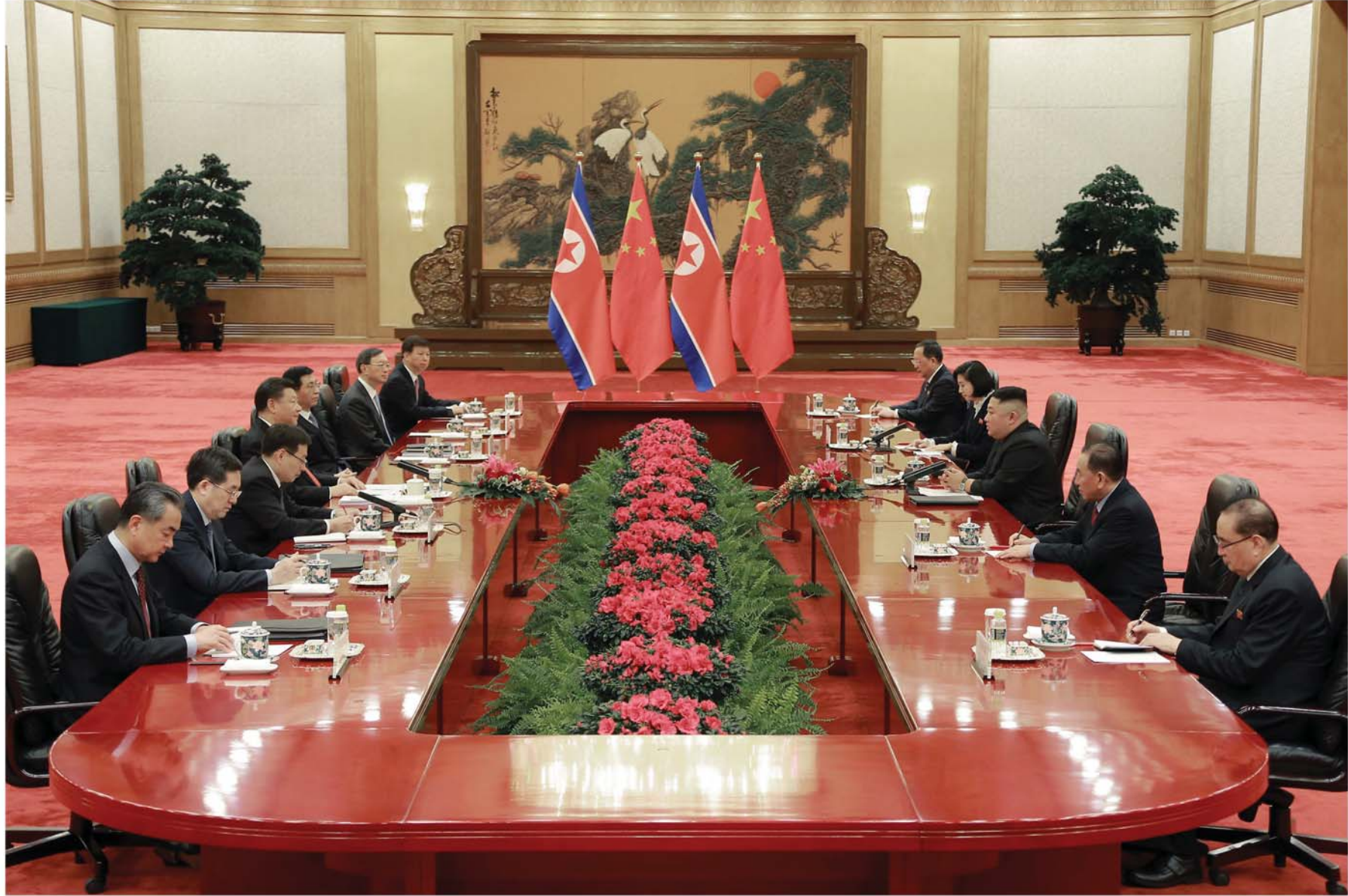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상봉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앞으로도 중국측과 일치단결해나갈것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새해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호상래왕의 전통을 견지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다.

중국당과 정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주체108(2019)년 1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실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습근평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였다.

회담은 시종 따뜻하고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8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연회에서는 습근평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지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사스럽고 아름다운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깊고도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새해 중조관계발전의 서막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력사의 한페지를 펼치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정부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있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반드시 관철하여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보다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당, 두 나라관계발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기할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중관계의 위대한 새 력사, 빛나는 새시대에 맞게 조중친선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려는 굳은 의지를 안고 새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상봉은 지난해 조중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되게 한 굳건한 초석으로,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도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을 잡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계속 써나갈것이며 조중공동의 힘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9일 베이징호텔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각별한 동지적우정과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이하시며 허심탄회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시며 화기롭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최고령도자동지와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오전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 제약분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중국전통약품생산기업인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의 제약분공장을 참관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 3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베이징을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단동역을 떠나시면서 방문기간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과 진실하고 훌륭한 환대를 베풀어준 습근평동지에게 친히 쓰신 감사서한을 보내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새해 정초에 진행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방문은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으로서 조중최고지도부의 전략적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시며 화기롭고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베이징을 출발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단동역을 떠나시면서 습근평동지에게 친히 쓰신 감사서한을 보내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맞이한 새해 2019년

희망찬 새해 주체108(2019)년을 맞으며 설맞이축하무대가 특색있게 펼쳐졌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최원철, 홍광남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축복의 설눈아 내려라》

학생소년들의 주체108(2019)년 설맞이공연 《축복의 설눈아 내려라》가 지난해 12월 3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서장 《아버지원수님께 설인사드려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새해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무대에 올린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한평생을 아름다운 선률에 담아 열렬히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지덕체의 나래를 펴고 미래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양양한 미래를 확신시켜주며 송년의 밤을 뜻깊게 장식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글 최의림

증산의 동음 높이

남포시 강서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수직후라이스반과 원통연마반들의 CNC화를 실현하고 도장 및 도금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 생산장성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각종 부속품과 부분품의 가공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세워진것과 함께 모든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제품들의 성능이 훨씬 개선되였다.

지난해 10월말까지 년간 뜨락또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긍지를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기 위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다.

소재보장과 가공을 맡은 주물, 주강, 단조직장들에서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리면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제관, 치차, 1, 2가공직장을 비롯한 부속품, 부분품가공을 맡은 직장들과 1, 2조립직장들에서도 새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활동과 함께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 로보트화하여 로력절약형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문광봉

가공, 조립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유색금속생산에서 혁신을

나라의 위력한 유색금속생산기지인 단천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에도 더 많은 유색금속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일념안고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한 지난해에 그들은 기업소의 생산활동을 더욱 다그치고 나라의 유색금속공업발전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성과들을 련속 이룩하였다.

그들은 은, 연을 비롯한 유가금속들의 회수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정비보강하고 필요한 첨가제생산공정들도 새롭게 꾸리였다.

이 과정에 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수많은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제작하고 미분탄에 의한 배소로화입기술을 비롯한 새 기술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였다.

지금 아연생산공정과 유가금속생산공정, 산화아연생산공정을 비롯한 제련소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일군들은 원료보장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단위들간의 련계와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아연생산의 심장부를 지켜선 배소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배소로들을 비롯한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면서 소광생산량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조액직장에서는 조액의 침출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방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면서 조액실수률을 부쩍 높이고있다.

전해직장에서도 모든 기대공들속에서 전류효률을 높여 제품의 량과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에 품을 넣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장성의 활로를 열어가고있는 단천제련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세찬 진군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미예

물정제장

주조장

분석실

비료생산이 늘어난다

함경남도 함흥시에 자리잡고있는 굴지의 화학공업기지-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로동계급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생산활성화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경영활동을 더욱 짜고드는것과 함께 과학기술력량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직장과 작업반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원료직장에서는 파쇄와 사별, 건조공정들간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원료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 가스발생로의 가동대수가 더욱 늘어난데 맞게 생산효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증기직장에서도 보이라들에서의 열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면서 모든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물전해직장, 2합성직장, 가스청정직장, 2질소직장, 질안직장들에서도 겨울철조건에 맞게 설비들의 운영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 기대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은 암모니아합성촉매재생공정과 탄산가스정밀탈류촉매생산공정, 물정제용이온교환수지재생공정을 비롯하여 모든 비료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주요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갱신하고 생산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생산을 다그쳐 사회주의협동벌들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려는 흥남로동계급의 열의는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사진 안평혁, 글 김필

불야경의 창조자들

선경불장식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조국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돋구어가는 주인공들이다.

주체96(2007)년 6월에 창립되여 평양의 인민대학습당과 천리마동상에 대한 불장식을 실현하는것으로 첫걸음을 뗀 연구소는 오늘 조명 및 불장식분야의 과학기술개발 및 기술봉사능력을 튼튼히 갖춘 연구집단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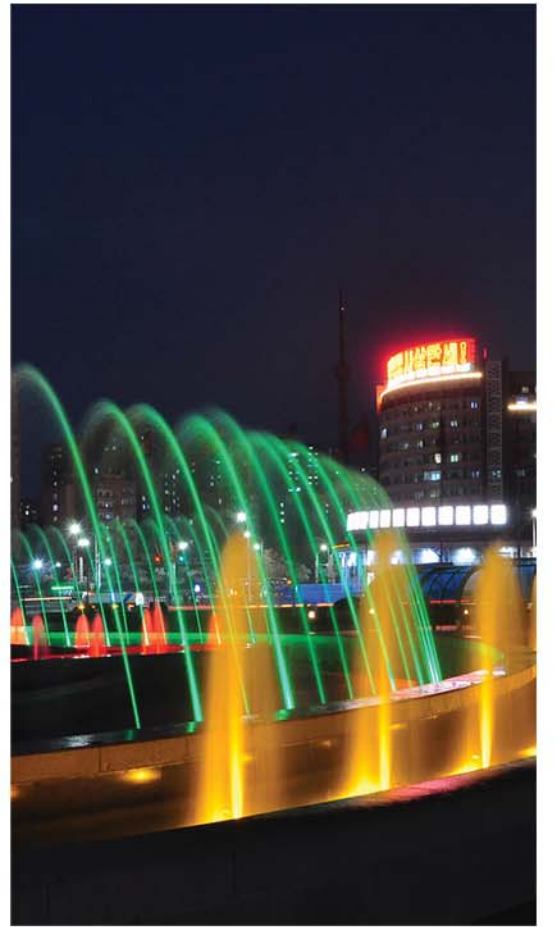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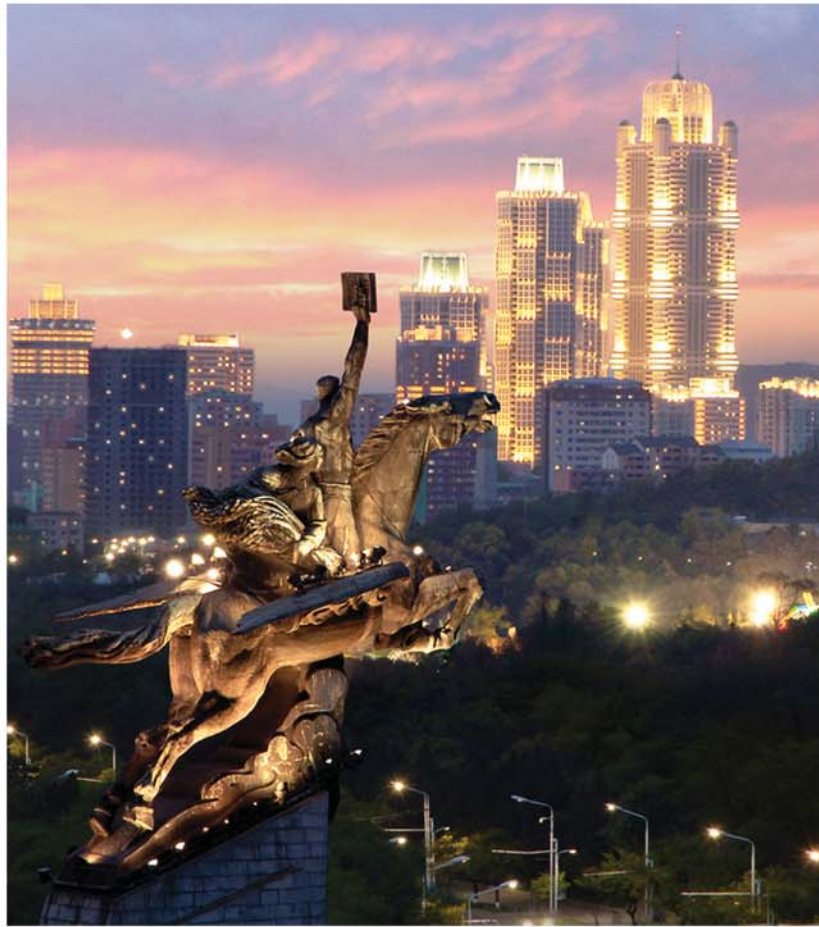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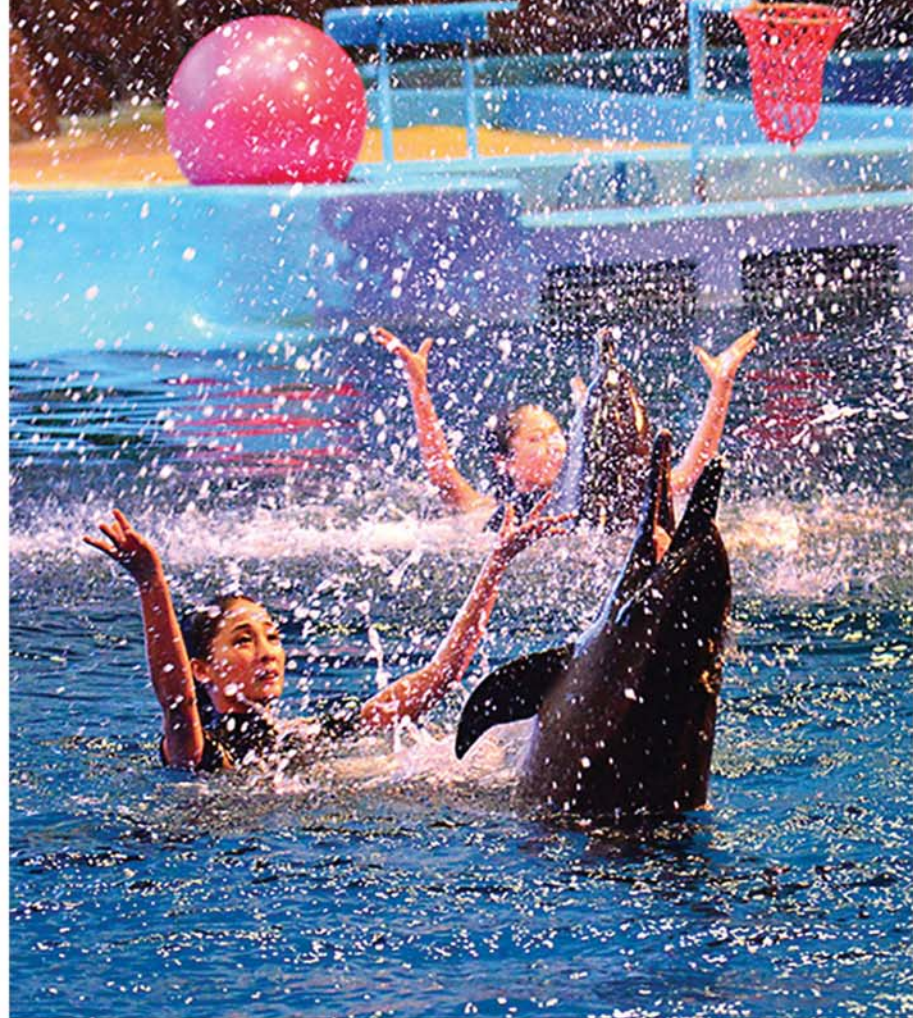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 전국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대한 불장식설계와 시공을 조선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완성하였다.

최근년간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높은 창조적야심과 배짱을 안고 집체적지혜와 힘을 발동하면서 률동LED점광원과 대형선전화률동조종장치를 개발하고 조광효과를 가지는 LED등기구와 방향성조명기구, 각종 실내장식들을 제작하는 등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여 수도의 건축물들과 거리들의 불장식에 도입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에 황홀한 야경이 펼쳐지게 되였고 조선에서 건축규모가 가장 큰 류경호텔의 방대한 건물벽면이 그대로 장쾌한 불야경을 이루게 되였다.

전국도처에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고상하고 품위있는 불장식장관을 펼쳐나가려는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필

불장식설계와 시공을 조선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연구사들

천리마동상, 개선문을 비롯한 건축물들에 실현한 불장식은 수도 평양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있다.

바다동물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릉라곱등어관

평양의 중심부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릉라도에 자리잡은 릉라곱등어관에서는 매일같이 바다동물들의 교예공연무대가 펼쳐진다.

동물교예에 처음으로 《출연》하던 때에는 높이뛰기, 륜돌리기, 손님과의 뽀뽀, 악수 등만을 보여주던 곱등어들이 이제는 고급한 동작들까지 한점의 실수도 없이 훌륭하게 수행하여 초만원을 이룬 관람자들의 찬사를 모으고있다.

《릉라》1, 2, 3호, 《평양》1, 2, 3호로 불리우는 곱등어들은 일시에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높이 매달린 공을 주둥이로 치기도 하고 조교사들과 어울려 물속에서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기도 한다.

제시되는 산수문제들의 답을 척척 맞추고 무대에 나온 손님과의 륜돌리기경기를 하거나 수면우에 설치된 롱구대의 륜안으로 공을 멋지게 쳐넣을 때면 온 장내에 박수갈채가 터져오른다.

물개들이 펼치는 다양한 기교동작들도 관람자들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준다.

무대우에서 공 2개를 주둥이와 꼬리에 동시에 올려놓고 앞발로 서서 재롱을 부리는가 하면 소형배구그물을 사이에 두고 공을 척척 넘기기도 하고 륜안에 공을 정확히 던져넣는 《출연자》들.

이쯤한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조교사가 이동하면서 던지는 륜들을 재빨리 헤엽치면서 목에 거는 등 높은 난도의 기교들도 펼쳐보인다.

녀자손님과 뽀뽀하라는 소개자의 말에 부끄러운듯 앞발로 주둥이를 가리우는 《물개2》호의 생동한 형상은 장내에 웃음의 파도가 일게 한다.

하기에 50분간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관람자들이 교예의 세계에 잠겨 자리를 뜰줄 모른다. 그리고 바다동물들의 교예를 또 보고싶다며 릉라곱등어관을 계속 찾는다.

사진 리명국, 글 김미예

평양육아원의 세쌍둥이들

조선에서는 세쌍둥이들이 태여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로, 경사로 여기며 이들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기한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몸무게가 4kg이상이 될 때라야 평양산원을 나서게 되는 세쌍둥이들은 그때부터 평양육아원을 비롯한 전국의 육아원들에 보금자리를 잡고 4살까지 자라게 된다.

주체103(2014)년 10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솟아난 평양육아원에는 지금 6쌍의 세쌍둥이들이 있다.

이곳의 세쌍둥이들에게는 각각 여러명의 《엄마》들이 있다.

낮에 밤을 이어 그들의 양육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보육원들과 담당의사이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고 그들은 때없이 그리고 스스럼없이 엄마라고 찾는 세쌍둥이들을 위해 하루같이 친혈육과도 같은 사랑과 정을 기울인다.

육아원에서는 월에 한번씩 모든 세쌍둥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전문가들과의 진지한 협의속에 매 아이들에 해당한 영양관리대책을 새로 세우고 실현해나간다.

그리고 담당의사와 함께 그들의 건강을 책임진 옥류아동병원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자그마한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입원시켜 완쾌될 때까지 집중치료한다.

육아원에서는 세쌍둥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함께 그들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재능의 싹도 찾아낸다.

자식들을 만나보려고 육아원을 찾아오군 하는 친부모들은 날이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그들을 안아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한다.

3살짜리 아들세쌍둥이들인 원강성, 원강대, 원강국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태여났을 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산원을 거쳐 평양육아원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고마움으로 하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진 홍광남, 글 문광봉

세쌍둥이들은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육아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영예군인 박사지배인

김정일훈장수훈자, 로력영웅, 박사인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 강남익

주체89(2000)년 4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여 공장구내를 돌아보던 강남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예군인들을 위해 1970년대에 설립된 공장은 당시 몇동의 단층건물들에서 여러종의 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 주변지역 사람들조차 별반 모르는 자그마한 기업소였다.

(지금처럼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예군인들의 마음을 위안할수는 없다.)

군사복무시절 대대장을 하던 강남익은 뜻밖의 정황속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한눈을 실명당하여 32살에 제대되였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나에게는 국가에서 안겨준 영예군인이라는 소중한 칭호가 있다는 자각은 평양시의 한 구역인민위원회에서 사업하던 시기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하기에 강남익지배인은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건설 그리고 종업원살림집건설까지 동시에 밀고나갈 목표를 세웠다.

연건축면적이 1만여㎡에 달하는 아름찬 계획이였지만 건설전문가자격도 있는 그였기에 하나하나 완강하게 실현해나갔다.

그러나 더 큰 난관은 아직 앞에 있었다.

당시 강남익이 제일 우려했던것은 경제실무와 화학, 기계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현장지도를 실속있게 못하는것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1년동안 밤을 지새워가며 직심스럽게 공부를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현대적인 공장이 순조롭게 건설된것은 결코 아니였다.

새 설비를 들여온 언제인가는 자신은 물론 공장의 그 누구도 조작방법을 몰라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남익은 공장안에 집단적인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킬것을 그리고 그 앞장에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설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일어섰다.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전문공학기술들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직접 여러 연구성과들을 내놓으면서 주체104(2015)년에 공학박사학위까지 받은 강남익의 열정은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그 나날속에 공장은 갖가지 식료품포장주머니와 수지용기, 수지관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각종 수지제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이 되였다.

사진 리철진, 글 강수정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있는 강남익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협의회도 자주 조직한다.

초빙강의에도 출연하여

운동실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어린 연주가들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 어은금 3중주에 출연한 신정현, 박예휘, 장예정어린이들이 받은 연주상

《우리 유치원어린이들의 어은금3중주가 출연하였을 때 관중들의 반향은 대단했습니다. 노래 〈웃음많은 우리 집〉이 연주되는 2분 50초동안 우리 꼬마연주가들의 솜씨에 매혹된 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련거퍼 재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 참가하였던 경상유치원 교양원 민혜란의 말이다.

20여개 나라의 전도유망한 음악신동들이 참가한 축전에서 경상유치원의 6살 난 신정현, 박예휘, 장예정어린이들은 제일 나어린 연주가들이였다.

박형태의 울림통과 짚음대, 머리부분으로 되여있는 어은금은 고정괘에 매여진 4개의 철선을 오른손에 쥔 술로 튕겨서 독특한 음색을 내는 조선의 민족현악기이다.

이 악기를 6살나이에 능란하게 연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상유치원의 재간둥이들은 어은금을 능란하게 타면서 작품을 훌륭히 형상하여 첫 공연에서부터 재청을 받았으며 축전의 관례를 깨고 련이어 3차례나 출연하였다.

이들이 어은금을 배우기 시작한것은 1년밖에 안되였다.

연주기법을 익히던 초기에는 손에 물집이 생겨 운적도 있는 예휘였고 오른손 튕기기가 너무 힘들어 앉아서 건반만 누르면 소리나는 피아노를 하겠다고 떼썼던 정현이였다.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즐겁게 추억하며 교양원은 처음으로 큰 무대에 나선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았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지난 시기 여러 국제무대들에서 훌륭한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축전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예술전문가들은 조선에서 꼬마재간둥이들을 참가시켜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무대들마다에 생기와 활력을 부어준 나어린 음악신동들의 높은 예술적기량과 연주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하였다.

사진 김윤혁, 글 문진유

전통적으로 열리는 얼음조각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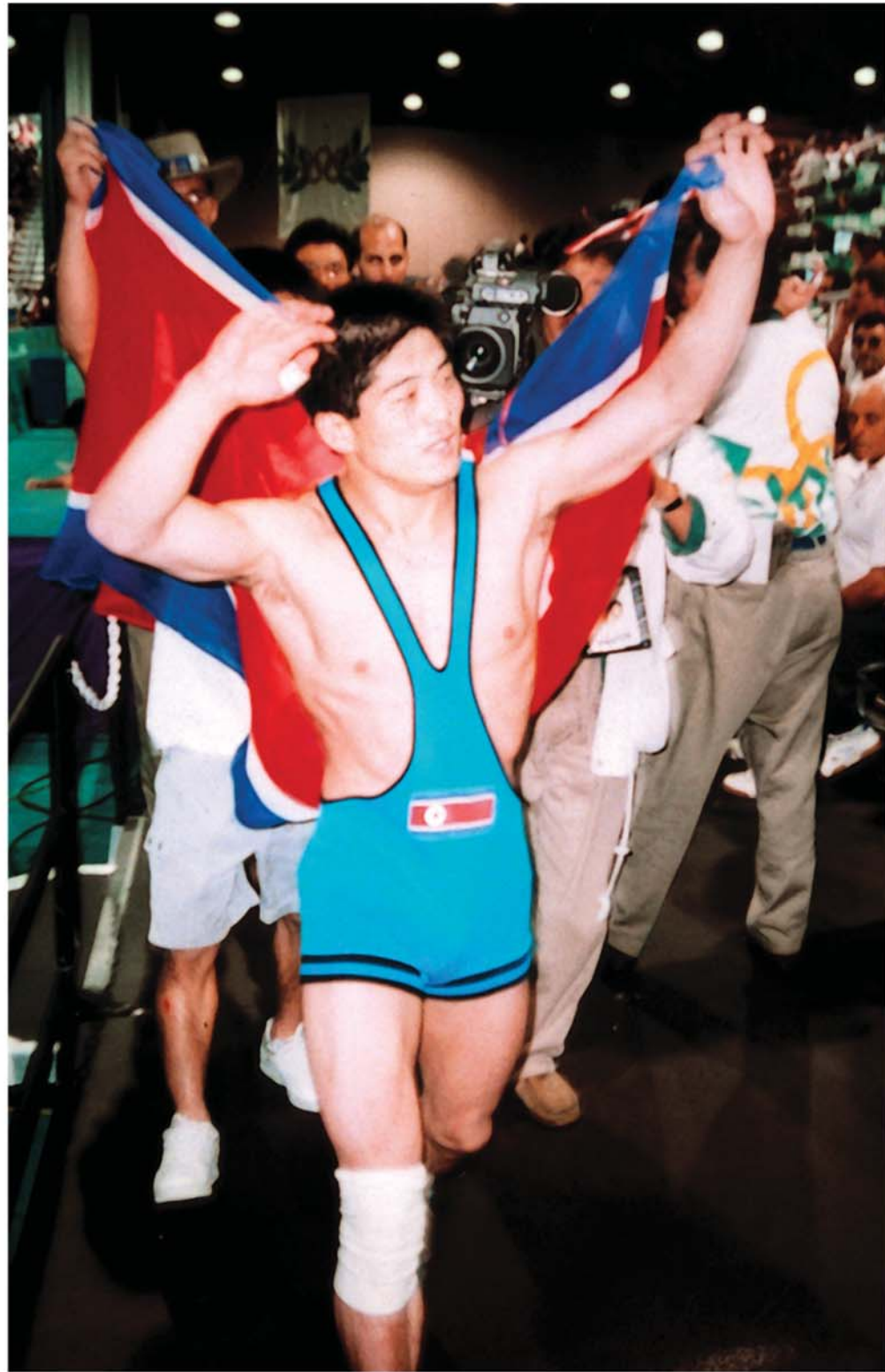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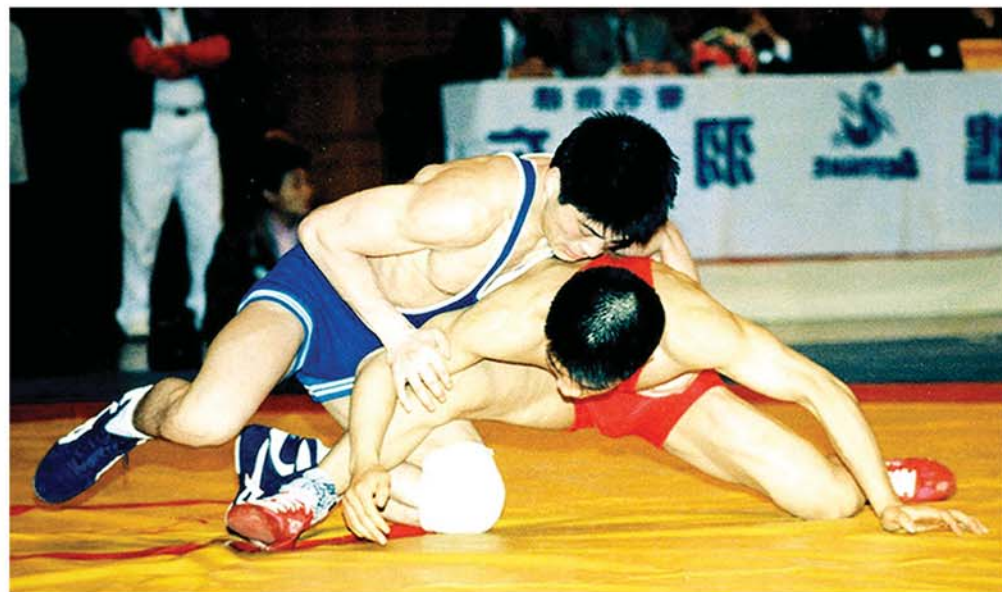
해마다 겨울이 오면 조선에서는 수도 평양의 대동강반과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에서 얼음조각축전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군 한다.

축전이 진행될 때면 축전장들은 평양과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로 차넘친다.

축전장에 펼쳐지는 황홀하고 희한한 얼음세계, 눈세계와 함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자아내는 다양한 사상주제적내용의 조각전시품들은 참관자들모두에게 커다란 감흥과 여운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해마다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성의를 다하여 만든 얼음조각작품들을 내놓는것으로 하여 축전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있다.

사진 홍광남, 김윤철, 글 박병훈

해마다 진행되는 얼음조각축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제25차,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자유형레스링 남자 48㎏급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에스빠냐 바르쎌로나에서 진행된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 시상대에 오른 김일

2중 올림픽우승자의 어제와 오늘

35년전 어느날 평양시 서성구역청소년체육구락부(당시)에 형님을 찾아왔던 한 소년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레스링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형님들을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넌 어디서 왔느냐?》 감독은 그를 불러 유심히 지켜보았다. 당돌한 소년의 입에서는 《저에게 레스링 배워주세요.》라는 말이 불쑥 튀여나왔다. 그가 바로 13살 나던 김일이였다.

이렇게 레스링을 시작한 김일은 일류급의 선수가 될 꿈을 안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조선씨름의 기술수법들을 자유형레스링기술에 도입한 그는 다리잡기를 위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것을 자기의 특기로 하였다.

선수생활을 시작한 김일은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눈길을 모았다.

그는 자기의 특기동작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청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와 제8차 아시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의 48㎏급경기들에서 1등을 하였다.

이어 그는 주체81(1992)년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 자유형레스링 48㎏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이해에 인민체육인이 된 그는 조국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더 힘차게 훈련하여 3중 아시아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주체85(1996)년에 진행된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자유형레스링 48㎏급경기에 또다시 출전한 김일은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또다시 올림픽우승자가 되였으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김형직사범대학 체육학부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일은 당시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부원으로부터 레스링협회 서기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시대적요구와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훈련과정안과 교육요강을 작성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능한 레스링선수후비들을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하여 2중 세계선수권보유자 인민체육인 양경일, 세계선수권보유자 인민체육인 윤원철을 비롯한 이름난 레스링선수들이 배출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오늘도 김일은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떠날줄 모른다.

그는 늘 선수들에게 래일에 가서 떳떳이 추억할수 있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군 한다.

사진 김윤혁, 글 강수정

오늘 김일은 레스링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우표수집책을 펼쳐보며

우표수집가 가정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동에서 사는 리광선의 가족은 모두가 우표수집가들이다.

세대주인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리광선이 30여년전 우표수집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

주체71(1982)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고향의 부모형제 그리고 친척, 친우들과의 서신거래가 매우 활발했던 그는 졸업무렵에 와서 트렁크에 차고넘치는 편지들의 처리문제와 부닥쳤다고 한다.

부모님들의 당부와 동무들의 고무격려를 항상 되새기며 과학의 최고전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대학생시절을 연연히 추억케 하는 편지들을 없애자니 속이 알알했던 그는 편지봉투에 붙어있는 우표들만이라도 떼내서 간수하기로 하였다.

그것을 실행하고난 리광선은 학습장 한권을 다 채운 우표들의 개수에도 놀랐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지식의 방대함에 더더욱 놀랐다.

우표들은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과 력사, 지리, 풍속 등을 다 보여주고있었던것이다.

우표가 결코 단순한 우편료금지불증서가 아님을 새삼스레 느낀 그는 점차 우표수집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우표수집가들을 만나 우표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보존하는 방법 등을 터득하는 과정에 우표수집의 매력에 더욱더 심취된 그는 하나의 우표를 얻기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교원이 된 후에도,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는 여가시간을 자주 우표수집으로 보내였다.

한장한장 수집한 우표들을 보면서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이 거창한 창조의 시대에 자신도 있다는 행복감과 더불어 새 수학공식이 저도 모르게 뇌리를 치기도 했다며 리광선은 우표수집의 방법과 묘리들은 자신이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탐구하고 강의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3 000여종의 우표를 수집해놓은 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조선우표수집전시회들에서 매번 높은 평가를 받군 하였다.

주체95(2006)년 6월과 주체96(2007)년 6월에는 중국의 천진시에서 열린 국제문화교류축전에 여러가지 우표를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조선우표애호가동맹의 회원이며 로씨야민족우표아까데미야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수집한 우표들을 보며 조국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꿈과 희망을 키워온 자식들도 모두 정열적인 우표수집가들이다.

사진 김설희, 글 김선경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발굴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의 연구집단이 백두산에서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의 제단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천지호반의 향도봉소분지에 위치하고있는 작은 구릉형태의 제단은 밑면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36m정도이고 웃면은 길이 15m, 너비 12m정도이다. 높이가 약 9m인 제단의 정점에는 24자의 글이 새겨져있는 길이 140㎝, 너비 80㎝정도 되는 돌판이 있다.

글에는 이곳이 조선봉건왕조의 첫번째 왕이 하늘과 땅이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것을 바라며 제를 지낸 곳이라는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제단에서는 26자의 글이 먹으로 씌여진 길이 26㎝, 너비 20㎝정도의 납작한 돌도 발견되였는데 글의 내용은 사람들이 공주의 복을 바라며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는것이다.

제단유적은 조선사람들이 오래전에 백두산에 설치한 국가적인 제단에서 의식들을 진행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조선민족이 력사적으로 백두산을 높이 숭상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척하여왔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사진, 글 최의림

제단유적에서 발견된 금석문들

독도는 조선의 고유한 령토

독도는 조선동해의 울릉도 남단의 간령말에서 남동쪽으로 92.6㎞정도 떨어져있는 섬으로서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세상에 공인된 조선의 고유한 령토이다.

《삼국사기》(1145년), 《고려사》(1451년) 등 조선의 수많은 력사책들은 물론 《조선연안수로집》, 《시마네현지》 등 일본의 사료들에도 독도는 엄연하게 조선의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패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표기되여있다.

독도가 조선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라는 자료들은 최근년간에도 많이 발굴되고있다.

2016년에 공개된 1888년과 1889년의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용지도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전혀 표시되여있지 않았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도 독도는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은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고 무작정 우기면서 생떼를 쓰던 나머지 어처구니없는 광대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일본당국은 해마다 2월 22일을 《다께시마(독도)의 날》로 정해놓고 국민들속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의식을 주입시키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독도가 일본령토라고 《공식선포》한 정부의 외교청서가 발표되고 집권자들의 입에서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저들의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있을뿐아니라 수많은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놓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학생들의 교과서들이 독도가 일본의것이라는 문구들로 어지럽혀지고있는것이 오늘 일본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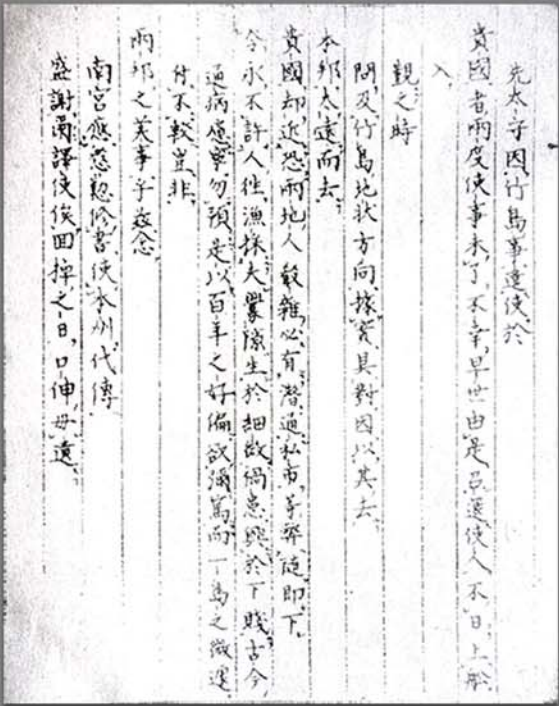
일본반동들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계속 무분별하게 벌려놓고있는 독도강탈놀음은 골수에 사무친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 령토팽창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책동의 서막이다.

그러나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달리될수없는 조선의 고유한 령토이다.

일본은 력사와 현실을 바로 보는 법을 이제부터라도 배우는것이 자기에게 더 리롭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글 정기상

독도가 조선의 고유한 령토이라는데 대하여 실증하는 력사자료들의 일부

《8도총도》 1530년

도꾸가와막부가 울릉도, 독도의 조선령유권을 인정한 공식문건

《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신재철 13606-1980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새해의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며 행복의 꽃보라, 환희의 꽃보라가 터져오른다.
사진 조선중앙통신